

**'2014 산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을 22일 개최**



산림청(청장 신원섭)은 대형 산불발생 상황을 가정한 '2014 산불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'을 22일 개최했다. 이날 훈련은 대형 산불발생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산불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와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. 훈련의 주요내용은 ▲산불발생과 확산 시 수습본부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최초 상황판단회의 개최 ▲중앙산불상황실의 반별 운영 ▲소방방재청 등 산불유관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발표 ▲참석자 간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됐다.

**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·도 관계관회의 개최**



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신원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재선충병이 발생한 11개 시·도, 23개 시·군·구의 지자체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.

**숲학교 국제심포지엄**



신원섭 산림청장이 지난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'숲학교 국제심포지엄'에 참석했다. 신 청장은 인사말에서 "산림청은 산림교육 기반 인프라 확충, 전문가 양성, 프로그램 개발 등 산림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**전국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**



산림청은 5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야산에서 전국 산불진화 합동시범훈련을 실시했다. 산림청 헬기를 비롯 민·관·군 헬기 13대와 차량 15대 등 대규모 진화 장비가 투입돼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산불 재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다.

## 산림과학원, 꽃자왈의 실체와 보전 심포지엄



꽃자왈의 보전, 법률수준으로 강화해야 - 10월 16일, 꽃자왈의 실체와 보전 심포지엄 개최 - ○ 국립산림과학원(원장 윤영균)과 꽃자왈공유화재단(이사장 오경애)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 2청사에서 '꽃자왈의 실체와 보전'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. ○ 이번 심포지엄은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꽃자왈의 지질학적 학술연구를 통한 꽃자

왈의 범위와 실체를 논의하고, 아울러 꽃자왈의 보전을 위한 관련 정책과 향후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. ○ 이번 심포지엄에서 경기대학교의 박진우 교수는 꽃자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률적 기반조성을 강조했다. 박 교수는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으로서의 꽃자왈의 위상과, WCC 의제 채택 및 이행지원, 다른 법률과의 충돌시 보호, 분쟁이나 갈등에서의 보호를 위해서도 조례수준이 아닌 법률로써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. ○ 윤영균 원장과 오경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'이번 심포지엄이 꽃자왈의 지질학적 이해의 새로운 방향성과 지속가능한 법률적 기반조성을 제시해, 꽃자왈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'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.

## 한-일 산림협력 고위급 회의



신원섭 산림청장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사토시 이마이 일본 임야청장과 산림협력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. 이날 양국은 국유림경영관리, 산림치유,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## 신원섭 산림청장,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점검



신원섭 산림청장은 22일 경남 사천시 축동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찾아 피해고사목 제거 등 방제 상황을 점검하고 작업자들을 격려했다.

## 2014 목재산업박람회



신원섭 산림청장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'목재의 가치를 보다'라는 주제로 열린 '2014 목재산업박람회' 개막식에 참석, 전시된 목재가공품 및 생활가구 등을 둘러봤다.